

“천일염 두 포대가 커피 한잔 값... 생산 할수록 손해”

국내 총 생산량의 91%가 전남산... 수입산 밀물에 가격 폭락 아우성 소금 수입 줄이고 산업구조 개혁 시급... 휴식년제로 생산량 조절해야

전남 천일염 산업 현황과 과제

생산은 늘고, 수요는 줄고 있다. 저염식이 인기를 끌고, 김장문화가 사라지면서 천일염산업이 위기에 몰렸다. 당연히 가격은 폭락했다. 하지만 값싼 수입 소금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전남 천일염산업 현황=우리나라 천일염 생산량은 32만3004t이다. 이 중 91%인 29만3215t이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업체는 1014곳이다. 염전면적은 2832ha로 전국(3724ha) 대비 76%를 점유하고 있다.

천일염 주산지는 신안이다. 신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염전이 자리하고 있는 등 840여 생산업체가 2660ha에서 23만여t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 천일염 생산량의 약 80%가 신안산이다.

영광에서는 110여개 업체가 4만여t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 무안·해남·목포 등에서도 염전이 운영되고 있다.

천일염 생산업체의 평균 생산면적은 4.1ha다. 하지만 평균 규모 이하의 염전 비율이 80%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고령화 등의 이유로 염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천일염 수출은 4898t에 그친 반면 수입은 365만t으로 745배에 달했다. 천일염 수출 가격은 t당 375달러, 수입 가격은 t당 32달러로 우리나라 천일염이 10배를 웃돌고 있다.

◇전망과 과제=생산자들은 천일염 가격이 생산

원가에도 못미친다며 아우성이다.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천일염 산업의 구조 개혁과 함께 소비자 수요를 감안한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소금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인도·중국 등에서 수입한 값싼 소금이 대규모 소비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금 수입은 지난 2014년 378만8193t(천일염 357만5114t)에서 2015년 402만301t(383만879t)으로 25만t 이상 증가했다가 지난해 385만6169t(365만229t)으로 줄었다. 지난해 국내 천일염 생산이 32만3004t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생산량의 10배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산 천일염 가격이 폭락하고, 국내 소금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지역 염전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는 10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수입 소금이 국산 소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절임배추 등 김치제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치제품 포장에 국내산 또는 수입산 천일염 등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적정량 생산을 위해 ‘천일염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폐전·폐염때 국고 지원 부활, 업종 변경시 규제 완화 등도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정부의 천일염 조기 수매와 수매량 확대도 바라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천일염 가격이 몇 년째 곤두박질치면서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전남지역 염전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감추고 있다. 천일염 생산을 포기한 염전들 가운데 일부는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 부지로 거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광주일보 자료사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일성

“서열화 된 교육체제 고치겠다”

수능 절대평가·자사고 폐지 예고

“국립대 총장 임명 지연은 교육 적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 전반의 메가톤급 혁신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과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라며 “교육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 돼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사고·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법론으로는 국민적 공감 확보를 들었다. 그는 “서열화 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

이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국민과 교육 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주요 정책들은 국가 교육회의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내포된 사안”이라며 절대평가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한국사·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일종의 ‘사범 도입’ 아니겠나”라며 “이를 얼마나 확대할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수능 문제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등이 내포되어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화에) 단계를 돌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유학기제,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을 계승하고,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 임명을 지연한 데 대해 “교육 적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부패한 공직자는 국민의 적”

검찰 개혁 의지... 20일 청문회

“성안종 리스트 수사 좌고우면 없었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검찰 고위간부의 뇌물 의혹, ‘돈 봉투’ 사건 등 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이자 향후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또, 그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자는 이날부터 윤용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의 지원을 받으며 신상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실현 방안,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그간 검사장과 고검장 승진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신상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015년 문 후보자가 이끌었던 ‘성안종 리스트’ 수사 결과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양측에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눈치 보기 식 수사”라고 비판한 적이 있으며, 옛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문 후보자의 수사팀에 의해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둔 홍준표 당 대표 측을 중심으로 불만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좌고우면이 전혀 없었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실천~

♣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 41세~만64세 의료급여세대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에 1회)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검사 (B형간염검사, 골밀도 검사, 정신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상담을 실시

☘ 암검진

- 대상자 :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만 40세이상, 2년주기)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유방암 (만 40세이상 여성, 2년주기)
· 간암 (만 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주기)
· 대장암 (만 50세이상, 1년주기)

😊 영유아검진

생후 4개월부터~7개월까지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 활용 안내

‘민원24’, (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결과를 접수완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작성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시 가능
- 대상면허 : 1종 보통면허, 2종 운전면허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안내

검진대상 : 9세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24세는 다른 국가검진과 중복 불가
검사항목 : (기본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검사, C형간염검사, 구강검사
(추가검사) 매독혈청반응검사, HIV항체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학교밖 청소년 검진관련 문의
(유선전화 : 1388, 핸드폰 : 지역번호+1388)


